

이번 주 수능,

"수능 당일, 시험장에서도 볼 가장 압축적인 연계 자료"

-수능 나흘 전, 2026년 11월 9일 공개-

람샘국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국어 영역

여기서 나온다.

1 장 | **올해 연계 예측 요약**

2 장 | **독서 딱 10지문**

3 장 | **문학 딱 10작품 - 고전시가**

4 장 | **문학 딱 10작품 - 고전소설**

해설 강의: '[국어 연계] 이번 주 수능, 여기서 나온다.' 유튜브 공개



2026 연계 예측 요약



1장

- 올해 연계 예측 요약

독서

인문예술

철학 또는 **역사**

사회문화

법

과학기술

화학 또는 **인공지능,
양자컴퓨터**

고전시가

★★★★ 1위 몽천요, 2위 선상탄, 3위 우국가
★★ 4위 사우가, 5위 출새곡 + 북천가, 북새곡

고전소설

★★★★ 1위 전우치전, 2위 구운몽, 3위 삼한습유
★★ 4위 숙향전, 5위 청백운 + 옥소전, 천수석

+ 현대시 딱 5작품: 병원, 눈 오는 지도, 당신을 보았습니다, 불사조, 오랑캐꽃

- 이번 주에 마주할 2026학년도 수능 국어, 이렇게 나옵니다.

- 독서 딱 10지문 리스트 -

중요도

★★★★

- 1위: (법) 수특 244p 주제통합06 법과 문서
- 2위: (화학) 수특 206p 과학기술10 초임계
- 3위: (법) 수특 267p 주제통합11 채권, 책임
- 4위: (기술) 수특 307p 실전학습2회 양자컴
- 5위: (기술) 수특 221p 주제통합01 인공지능

- 위 다섯 지문은 수능 당일 오전 8시, 시험 시작 40분 전까지 보세요.

중요도

★★

- 6위: (법) 수특 162p 사회문화13 채권
- 7위: (철학) 수특 93p 인문예술10 동일성
- 8위: (철학) 수특 89p 인문예술09 객체 인식
- 9위: (법) 수특 150p 사회문화10 형법
- 10위: (기술) 수특 193p 과학기술07 인공지능

- 위 다섯 지문은 수능 당일 시험장에 도착한 직후에 마지막으로 보세요.

+ α

- 11위: (역사) 수특 298p 실전학습2회 격물치지
- 12위: (화학+기술) 수완 218p 실전4회 원자로
- 13위: (역사) 수특 102p 인문예술12 왕위 계승
- 14위: (철학) 수특 98p 인문예술11 동일성

- 위 네 지문은 수능 전날 취침 전 마지막으로 보세요.

1위

법의 해석 방법과 전자 기록 위작의 의미

3줄 요약 (가)

- 1) 재판의 근거로 법 규범이 있는데, 법 규범의 대표적 예시는 실정법, 법률이 있고, 법관은 이것을 해석해야 한다. (법 해석)
- 2) 법 해석을 통해 법 이념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중에 법적 안정성이 구체적 타당성보다 우선적이다.
- 3) 실정법 해석의 목표 중에서 '제정시 입법자 의도 밝히기가 있는데, 이때 해석 방법이 다양하고, 적용 순서도 딱 정해지지 않았다.

문단별 요약 (가)

| 1문단 |

법은 사회 구성원의 행위를 규제하는 규범이며, 법관의 판단 근거가 된다.
이때 실정법 (국회가 제정한 법률 등)은 가장 중요한 법 규범이다.

| 2문단 |

법 해석은 '법의 이념(정의, 안정성, 타당성, 합목적성)'을 실현하려는 행위이다.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은 때로 충돌할 수 있으며, 대법원은 안정성을 우선시한다.

| 3문단 |

실정법 해석의 목표에 대해 '현재 시점의 의미를 밝히는 견해'와 '입법자의 의도를 밝히는 견해'가 대립한다. 두 견해는 해석 방법의 선택과 밀접히 관련된다.

| 4문단 |

법 해석 방법에는 문리 해석, 체계적 해석, 역사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 등이 있으며, 각각의 적용 기준이 다르다.

| 5문단 |

대법원은 문리 해석을 우선 적용하고, 그 의미가 불명확할 때 다른 해석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문리 해석 말고 다른 방법의 우선순위는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다.

1위

법의 해석 방법과 전자 기록 위작의 의미

3줄 요약 (나)

- 1) 문서 관련 범죄는 위조·변조·허위작성으로 구분되며, 문서를 사용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한다.
- 2) 공문서는 세 행위 모두 처벌되지만, 사문서는 원칙적으로 위조·변조만 처벌된다.
- 3) 전자기록 조작은 '위작'과 '변작'이 처벌되며, '위작'의 의미를 두고 대법원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대립한다.

문단별 요약 (나)

| 1문단 |

문서 관련 범죄는 위조·변조·허위작성으로 구분되며, 범죄로 인정되려면 '사용 목적'이 있어야 한다.

| 2문단 |

문서는 공문서·사문서로 구분된다. 공문서는 위조·변조·허위작성 모두 처벌, 사문서는 원칙적으로 위조·변조만 처벌된다. 단, 진단서 등 특별한 사문서는 허위작성도 처벌된다.

| 3문단 |

전자기록 조작은 기존 문서 개념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형법 조문으로 규정되었다. 전자기록에 대해서는 '위작'과 '변작'이 처벌 대상이다.

| 4문단 |

'위작'의 의미에 대해 대법원은 위조와 허위작성을 모두 포함한다고 본 반면, 일부는 위조와 같은 의미로 한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2위

초임계 유체와 분리 공정

3줄 요약

- 1) 앤드루스는 이산화탄소의 임계점을 발견하고 초임계 유체 개념을 제시했다.
- 2) 초임계 유체는 온도·압력 조절로 밀도를 크게 변화시켜 용해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 3) 역전점을 이용해 서로 다른 성분의 용해도 차이로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다.

문단별 요약

| 1문단 |

토마스 앤드루스가 이산화탄소 실험을 통해 임계온도(31°C)와 임계압력(73.8bar)을 발견, 임계점 개념 확립

| 2문단 |

용질의 용해도는 용매 밀도에 가장 크게 영향받음.
초임계 상태에서는 밀도 조절 폭이 커 용해도 조절 가능

| 3문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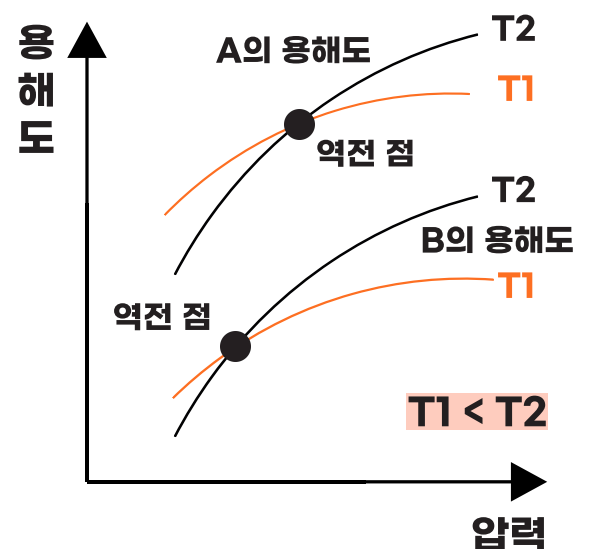
두 물질 A, B의 용해도 곡선에서 역전점이 존재
압력·온도 조건에 따라 용해도 변화 방향이 달라짐

| 4문단 |

역전점을 이용해 초임계 유체 내 혼합물(A, B)을 분리 가능.
실제 벤조산-데카네디올 분리에 활용됨

| 5문단 |

초임계 유체는 일반 액체보다 밀도 조절 범위가 넓어서,
액체 용매를 대체할 수 있는 효과적 분리 수단임



3줄 요약 (가)

- 1)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계약이나 법률로 발생한다.
- 2) 급부가 불가능한 경우는 원시적 불능(처음부터 불가능)과 후발적 불능(나중에 불가능)으로 구분된다.
- 3) 원시적 불능 → 계약 무효, 후발적 불능 → 손해배상으로 대체, 고의·과실 여부로 책임 판단

문단별 요약 (가)

| 1문단 |

채권은 타인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계약 또는 법률(불법행위 등)에 의해 발생한다. 고의와 과실의 개념을 통해 손해배상 채무가 성립할 수 있다.

| 2문단 |

채권은 보통 급부 이행으로 소멸하지만, 급부가 불가능한 경우(급부 불능)에는 원시적·후발적 불능으로 구분된다. 예시로 건축 금지 토지(원시적)와 공사 자금난(후발적)이 있다.

| 3문단 |

원시적 불능 계약은 무효이고, 후발적 불능은 계약은 유지되되 급부가 손해배상으로 바뀐다.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되며, 채권자의 인식이나 행동에 따라 배상액이 줄거나 면제 가능.

3위

급부 불능의 유형과 유상 계약의 담보 책임

3줄 요약 (나)

- 1) 과실 책임주의: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만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다.
- 2) 무과실 책임(담보 책임): 고의·과실이 없어도 급부의 하자나 수량 부족 시 채무자가 책임을 진다.
- 3) 담보 책임은 등가성 원칙에 근거하며, 손해는 가치 차액만 배상하되 심각한 경우 계약 해제 가능

문단별 요약 (나)

| 1문단 |

민법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며, 과실 책임주의에 따라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 2문단 |

예외적으로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책임이 발생하는 무과실 책임이 있으며, 그 대표가 '담보 책임'이다. 유상계약에서 급부에 하자나 수량 부족이 있을 때 적용된다.

| 3문단 |

담보 책임은 유상계약의 등가성 원칙에 근거하며, 배상액은 급부 가치가 반대급부에 미달하는 정도이다. 다만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로 하자가 심각하면 계약 해제 가능하다.

| 4문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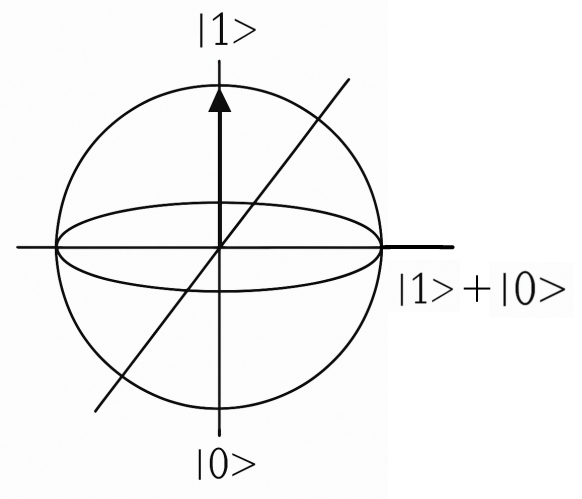
담보 책임은 가치 균형을 맞추는 수준까지만 인정되며, 그 이상의 손해는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별도 추궁해야 한다. 예시) 하자 자체는 담보 책임, 하자로 인한 2차 피해는 채무불이행 책임.

4위

양자 컴퓨터의 기본 연산 원리

3줄 요약

- 1) 고전 컴퓨터는 소자의 크기가 원자 수준에 도달하면서 성능 향상에 한계가 생겼다.
- 2)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qubit)'의 '중첩(superposition)'과 '스핀'을 이용해 정보를 표현, 연산한다.
- 3) 회전 연산과 CNOT 연산을 통해 병렬 연산을 수행하며, 양자 병렬성으로 초고속 처리가 가능



문단별 요약

|1문단|

고전 컴퓨터의 성능 향상은 소자 크기(트랜지스터·메모리) 축소에 의존하지만, 원자 수준에 가까워지면 전자 이동으로 합선이 발생해 발전 한계에 도달한다. → 대안: 양자 컴퓨터

|2문단|

양자 컴퓨터의 기본 단위는 *큐비트(qubit)*로, 0과 1의 *중첩 상태*를 표현할 수 있다. 큐비트는 전자의 *스핀(Spin)*을 이용해 물리적으로 구현되며, 스핀 업($|1\rangle$), 스핀 다운($|0\rangle$) 상태 및 중첩($|1\rangle + |0\rangle$) 상태로 표현된다.

|3문단|

양자 연산의 기본은 *회전 연산*으로, 스핀 방향을 회전시켜

$|1\rangle \leftrightarrow |0\rangle$ 전환(즉, NOT 연산)을 수행한다. 회전 각도에 따라 중첩 비율이 달라진다.

|4문단|

CNOT 연산(조건부 NOT)은 제어 비트의 상태(0 또는 1)에 따라 표적 비트의 상태를 유지, 혹은 바꾸는 연산이다. 중첩 상태에서도 각각의 고유 상태에 독립적으로 조작이 이루어진다.

|5문단|

큐비트의 중첩을 이용하면 여러 이진수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 n 개의 큐비트 $\rightarrow 2^n$ 개의 이진수 동시 처리* = *양자 병렬성*. → 고전 컴퓨터보다 압도적으로 빠른 연산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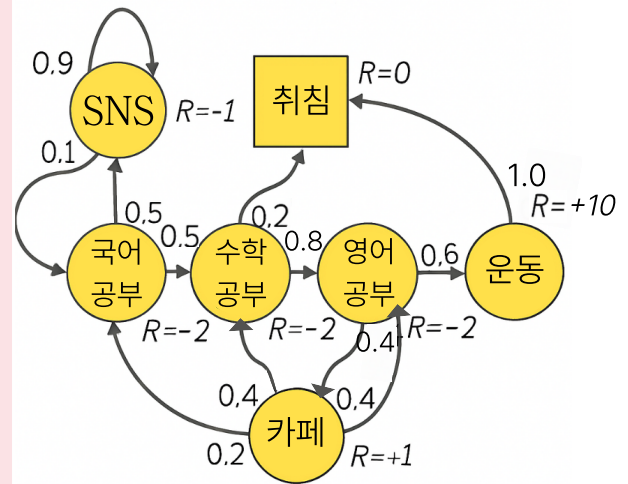
5위

MDP (마코프 의사 결정 모델)

* (가) 지문만 보고 가면 됩니다. (나)는 버리세요.

3줄 요약 (가)

- 1) 강화학습은 에이전트가 환경 속에서 보상을 최대화하도록 학습하는 과정이다. * MDP = 마코프 의사결정 모델
- 2) MDP는 상태·행동·보상·상태 변이 확률로 구성되며, 현재 상태만이 다음 상태에 영향을 준다.
- 3) 감쇄계수를 통해 미래 보상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며, 상태 가치 = 최적 행동 가치, 즉 이를 따르는 것이 최적 정책이다.



문단별 요약 (가)

| 1문단 |

강화학습은 환경 속에서 보상을 최대화하는 정책을 학습하는 과정이다.
리처드 벨만의 MDP는 현재 상태만이 다음 상태를 결정하는 *마코프 특성*을 가진다.

| 2문단 |

MDP는 *상태·행동·보상·상태 변이 확률*로 구성된다.
에이전트는 이를 종합해 *보상 합을 최대화하는 정책(행동의 묶음)*을 학습한다.

| 3문단 |

예시 상황에서 각 행동에 따른 보상과 상태 변이 확률이 주어질 때,
*미래 보상*을 *감쇄 계수(0~1)*로 환산하여 총보상을 계산한다.

| 4문단 |

보상과 감쇄 계수를 통해 *상태 가치(V)*와 *행동 가치(Q)*를 구한다.
최적 행동을 취했을 때 Q의 최댓값이 V와 같으며, 그 행동들의 묶음이 *최적 정책(π^*)*이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과 가압류의 효과

3줄 요약

- 1)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법원의 강제 집행을 통해 채권을 실현할 수 있다.
- 2) 경매를 통해 얻은 매각 대금은 배당 절차를 거쳐 채권자들에게 안분 배당된다.
- 3) 그러나 담보 물건자는 우선 변제권을 가지며, 일반 채권자는 이를 보호하기 위해 가압류 하기 가능

문단별 요약

| 1문단 |

채권은 채무자에게 행위를 요구할 권리이며, 금전 채권이 지급 기일에 이행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이 된다. 채권자는 법원을 통해 *강제 집행*만 가능, 부동산은 *경매 절차*로 진행됨

| 2문단 |

경매 신청 전 *확정 판결*로 채권의 존재가 공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이후 절차의 진행은 *압류 등기 → 매각 → 납부* 순으로 되고,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전 권리는 소멸한다.

| 3문단 |

매각 대금에서 경비를 제하고 남은 돈을 *배당 가능 금액*이라 하며, 여러 채권자가 있으면 *안분 배당(비율 배당)* 한다. 을:병 = 1:3 → 2,500만 원 : 7,500만 원

| 4문단 |

*담보 물건자*는 매각 대금에서 자신의 채권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을 가진다. 담보 물건은 *등기*로 공시되어 누구에게나 주장 가능하다.

| 5문단 |

일반 채권자는 담보가 없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 *가압류*를 해둘 수 있다. 가압류 후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도 집행을 주장할 수 있으나, *안분 배당만 가능*하다.

3줄 요약

- 1) 물리주의는 마음을 뇌와 같은 물리적 작용으로 설명하려는 입장이다.
- 2) 유형 동일설·토큰 동일설·기능주의·소거적 유물론 등은 마음과 물리적 사건의 관계를 각각 다르게 규정
- 3) 이들은 의식의 주관성 등 미해결 과제를 남겼지만, 심리 철학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문단별 요약

| 1문단 |

*물리주의*는 마음을 물리적 현상으로 설명함. * 모든 심적 사건은 뇌의 물리적 작용 결과.

| 2문단 - 유형 동일설 (스마트) |

‘심적 사건 유형 = 특정 뇌 상태 유형’이라는 입장. 예: 고통 = C-섬유 발화.

내관을 부정하고, 의식은 물리적 실재를 기술하는 언어로만 설명 가능.

| 3문단 - 토큰 동일설 (데이비드슨) |

‘심적 사건 = 특정 순간의 물리적 사건(토큰)’일 뿐, 유형 전체가 일치하지는 않음.

심적 사건은 물리적 사건의 *부수물(부수성)*로서, 전자→후자 영향은 없음.

| 4문단 - 기능주의 (퍼트넘, 포더) |

심적 사건은 물리적 상태 자체가 아니라 *수행하는 기능*으로 정의됨.

‘다중 실현 가능성’: 서로 다른 물리 구조(인간, 외계인, AI)에서도 동일한 심적 기능 실현 가능.

포더는 마음을 *모듈화된 정보처리 시스템*으로 설명.

| 5문단 - 소거적 유물론 (파이어아벤트) |

심리 용어는 부정확하므로 *신경과학적 언어로 대체*해야 함. ‘빨강게 보임’ 같은 용어는 결국 *물리적 반응(전자기파 등)*으로 설명 가능. 내관적 경험조차 물리주의 언어로 대체될 수 있음.

| 6문단 |

물리주의 이론들은 마음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켰으나, *의식의 주관성·자유의지·AI 의식*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음. 인지·신경과학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통찰 기대.

3줄 요약

- 1) 전통 철학(흄·후설)은 인간 중심으로 객체를 이해했지만, 하먼은 객체를 인간과 동등한 실재로 봄.
- 2) 그는 지식이 아닌 *은유적 인식(예술)*을 통해 객체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하였다.
- 3) 하먼은 *감상자와 예술의 융합(연극성)*을 긍정하며, 예술의 자율성을 새롭게 정의했다.

문단별 요약

| 1문단 (흄·후설) |

인간이 ‘객체’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한 논의. 흄: 객체는 감각의 묶음일 뿐.

후설: 객체는 변하지 않는 본질을 지닌 하나의 실체.

| 2문단 (하먼의 비판) |

흄·후설은 모두 *인간 중심적* 시각을 가짐. 하먼은 인간도 객체 중 하나일 뿐이라 보고, 인간의 인식과 무관한 *객체 자체의 존재*를 탐구의 필요성 주장. 이 탐구의 방식이 바로 *미학(예술)*

| 3문단 (지식 vs 아름다움) |

지식은 객체를 구성요소나 기능으로 ‘환원’하는 행위.

↳ 아래로 환원: 구성 요소 설명 / 위로 환원: 작용 설명 / 이중 환원: 둘 다.

하먼은 환원을 넘어, *객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활동이 예술*이라고 봄.

| 4문단 (은유와 아름다움) |

예술의 핵심은 *은유*. 은유는 지각 가능한 성질과 지각 불가능한 객체 사이의 *긴장*을 만들어 미적 효과를 낳음. 예: “교사는 양초이다.” → 직서적 설명 불가 → 유추를 통해 아름다움 경험

| 5문단 (감상자와 연극성) |

예술은 감상자의 개입으로 완성됨. 하먼은 연극성(작품과 감상자의 상호작용)을 긍정.

예술은 사회적 목적에 종속되지 않으면서도 감상자와 융합된 *혼성체*로 존재한다고 봄.

| 6문단 (의의) |

하먼의 철학은 인간 중심의 사고를 비판하고, 객체를 독립적 탐구 대상으로 제시.

또한 감상자를 포함한 새로운 미학 개념을 통해 예술의 방향성을 제시함.

위험범의 의미와 미수범의 유형

3줄 요약

- 1) 법익 보호를 위한 형벌 부과는 헌법의 비례 원칙과 법률 근거에 따라야 한다.
- 2)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법률로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침해범과 위험범으로 구분된다.
- 3) 미수범은 법익의 중요성과 보호 필요성에 따라 처벌. 유형(장애·중지·불능)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다름.

문단별 요약

| 1문단 (법익 보호와 비례 원칙) |

법익: 생명·신체·재산 등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국가는 법익 침해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서 형벌 부과 가능. 그러나 형벌은 *비례 원칙(필요 최소한)*을 지켜야 함.

| 2문단 (죄형법정주의와 범죄 유형) |

형벌은 *법률로 미리 규정*되어야 함(죄형법정주의). 범죄는 결과 발생 여부에 따라

㉠ 위험범 (결과 없어도 성립), ㉡ 침해범 (결과 발생해야 성립)으로 구분.

예: 방화죄(위험범), 재산손괴죄(침해범).

| 3문단 (미수범의 의의와 처벌 근거) |

범죄 완성 전이지만 실행 착수가 인정되는 경우 = *미수범*.

기수범만 처벌이 원칙이나, *중요 법익 보호 필요성이 큰 경우* 미수범도 처벌.

방화죄(사람이 있는 건물)처럼 위험범도 미수범 처벌 가능.

| 4문단 (미수범의 유형과 형벌 차이) | 미수범 3유형

① 장애미수 (외부 사정 실패) → 감경 가능.

② 중지미수 (자발 중단) → 반드시 감경·면제 (자발적 중단 장려).

③ 불능미수 (수단·대상 착각) → 감경 또는 면제 가능.

학습하는 지능 에이전트의 구조

3줄 요약

- 1) 지능형 에이전트는 감지기와 작동기를 통해 환경을 인식하고 변화시킨다.
- 2) 에이전트는 단순 반사형에서 효용 기반형으로 발전. 학습 능력을 갖추면 다양한 환경에서 적응 가능.
- 3) 학습하는 에이전트는 학습 요소·비평가·수행 요소·문제 생성기로 구성. 탐험으로 장기적 성과를 높임.

문단별 요약

| 1문단 (에이전트의 기본 개념과 합리적 에이전트) |

에이전트 = 인간 대신 자동으로 업무 수행하는 시스템.

감지기(지각)와 작동기(행동)를 통해 환경과 상호작용.

지능형 에이전트는 *성과 측도*에 따라 최적 행동을 선택하는 *합리적 에이전트*.

| 2문단 (에이전트 프로그램의 4개 유형) | 에이전트의 동작 선택 방식에 따라 유형이 나뉨

① 단순 반사형(현재 지각만 반응) → ② 모형 기반형(환경 모형 활용) →

③ 목표 기반형(목표 결합, 유연함) → ④ 효용 기반형(성과 측도로 '더 나은' 행동 선택)

| 3문단 (학습 에이전트의 필요성과 장점) |

학습 기능을 가진 에이전트는 경험을 통해 환경 적응 및 성과 향상 가능.

새로운 환경에서도 작동 가능, 초기 지식 이상으로 유능해짐.

| 4문단 (학습 에이전트의 구성 요소 4개) |

① 학습 요소 (지식 갱신), ② 비평가 (피드백 제공), ③ 수행 요소 (실제 행동),

④ 문제 생성기 (탐험 유도). 문제 생성기는 장기적 학습을 위한 *탐험적 동작* 제시.

| 5문단 (학습의 목적) |

학습의 궁극적 목적 = 각 요소를 개선하여 에이전트 전체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

문학 따라 작품 10

- 문학 딱 10지문 리스트 -

중요도

★★★

고전시가가
더 중요해!

①

고전시가

1위 몽천요, 2위 선상탄, 3위 우국가

②

고전소설

1위 전우치전, 2위 구운몽, 3위 삼한습유

- 위 다섯 지문은 수능 당일 오전 8시, 시험 시작 40분 전까지 보세요.

중요도

★★

고전시가가
더 중요해!

①

고전시가

4위 사우가, 5위 출새곡

②

고전소설

4위 속향전, 5위 청백운

- 위 다섯 지문은 수능 당일 시험장에 도착한 직후에 마지막으로 보세요.

+ α

고전시가 - 북천가, 북새곡

고전소설 - 옥소전, 천수석

- 위 네 지문은 수능 전날 취침 전 마지막으로 보세요.

1위

몽천요 (윤선도)

중요 포인트! 무조건 암기

작가 윤선도: 효종이 초고속 승진시켜 줘서 정적들이 막 탄압하고 탄핵시켰다 (탄핵, 윤, 선도로 암기)

→ 탄핵 당하고 지은 작품 → 내용 1) 은거 생활, 2) 다시 속세에 돌아와도 세상은 잔혹하다.

꿈의 기능: 꿈 = 옥황상제를 만나기 위한 통로/ 이루어질 수 없어서 아쉬움, 좌절감 느낌.

→ 정계 진출, 선정의 포부가 있었는데 좌절되게 함.

인물 2명 나온다! 옥황상제, 신선들 → 우의적 의미가 드러남 (우의적 의미: 직접X, 빗대어 표현)

옥황상제의 태도: 화자 반기고, 화자한테 웃음 → 임금(효종)이 초고속 승진시킨 것의 우의적 표현

〈-〉 (대비) 신선들의 태도: 화자를 꺼리고, 꾸짖음 → 신하들의 탄압, 탄핵한 것의 우의적 표현

본문 +현대어 해석

〈제1수〉

생시런가 꿈이런가 백옥경(白玉京)에 올라가니
옥황상제는 반기시나 신선들이 꺼리도다
두어라 오호연월(五湖煙月)이 내 분수임이 옳도다

〈제2수〉

뜻밖에 꿈을 꾸어 십이루(十二樓)에 들어가니
옥황상제는 웃으시되 신선들이 꾸짖는구나
어즈버 백만억(百萬億) 창생(蒼生)의 일을 어느 겨를에 물으리

〈제3수〉

하늘이 이지러졌을 제 무슨 기술로 기워 내었는고
백옥루(白玉樓) 중수할 제 어떤 장인바치가 이루어 내었는고
옥황상제께 아뢰어 보려 했더니 다 못하고서 왔도다

〈제1수〉

세상 박인가 꿈인가, 옥황상제의 궁궐에 올라가니
옥황상제께서는 나를 반기시나, 군선(신하)들이 나를 꺼리는구나
자연에서 풍류를 즐기는 것이 내 분수에 맞다고 생각해야겠다.

〈제2수〉

잠깐 꿈을 꾸어서 십이루(누가)에 들어가니
옥황상제께서는 나를 보며 웃으시지만, 군선들이 나를 꾸짖는구나
백만억 창생(백성)의 안부를 언제 시간이 나서 여쭙 봐야 할까

〈제3수〉

하늘이 찢어졌을 때 어떤 재주로 고쳐냈는가
백옥루를 중수할 때 어떤 신하가 그 일을 이뤄 냈는가
옥황상제께 여쭙 보려 했더니, 결국 그러지 못하고 돌아오는구나

2위

선상탄 (박인로)

중요 포인트! 무조건 암기

작가 임진왜란 참전했음. 전쟁이 끝났어도 왜구가 또 침입할 것을 대비했음.

→ 왜구에 대한 적개심 + 전쟁이 없는 태평성대에 대한 염원 → 그래서 제목이 '배 위에서의 탄식'

[고사 인용] 왜구 이겨낼 의지를 드러냄: '죽은 제갈도 산 중달을 멀리 ~' + '발 없는 손빈도 방연을~'

[은유법] 1) 임금의 성덕 (일월 강화는 아침마다 거듭) 2) 전쟁 극복, 태평성대 (파도 없는 바다)

처음에는 원망이 드러남 1) 배를 처음 만든 현원씨 원망 2) 왜적을 만든 진시황과 서불 원망

→ 하지만 배를 통해 자연을 즐길 수 있으니 오기 원망 더 안 할게!!

* EBS 수록 부분 제외하고 전문이 긴데, 직전에는 전문을 보기보다 연계교재 부분 위주로 보세요.

본문 구성

서사: 주사가 되어 진동영에 내려옴

본사1: 현원씨를 원망함

본사2: 왜적이 생긴 것을 개탄함

본사3: 배로 누릴 수 있는 풍류와 흥취

본사4: 옛날과 배는 같지만 풍류가 다름

본사5: 수치심과 작자의 우국지심

본사6: 설분신원을 다짐 (분한 것들을 씻어내고 원한을 풀고자 함)

결사: 태평 성태가 도래하기를 염원함

2위

선상탄 (박인로)

본문 수능특강 수록 부분

조그마한 이 몸이 병중에 들었으니
 분풀이도 한풀이도 어려울 듯하건마는
 그러나 죽은 제갈도 산 중달을 멀리 쫓고
 발 없는 손빈도 방연을 잡았거든
 하물며 이 몸은 수족을 갖추고 목숨을 이었으니
 쥐떼 개떼도 적들을 잠시나마 저어할쏘나
 비선(飛船)에 달려들어 선봉을 거치면
 구시월 서릿바람에 낙엽같이 헤치리라
 칠종칠금*을 우리인들 못하겠는가
 어리석은 섬 오랑캐들아 어서 항복하려무나
 항복한 자 안 죽이는 법 너를 굳이 섬멸하라
 우리 임금 성덕이 더불어 살자 하시니라
 태평천하에 요순 군민(君民) 되어 있어
 일월 광화(光華)는 아침마다 거듭하거늘
 전선(戰船)타던 우리 몸도 어주(魚舟)에서 노래하고
 가을달 봄바람에 높이 배고 누워 있어
 성대에 파도 없는 바다를 다시 보려 하노라

제가: 제갈공명

(손빈을 시기해 다리를 자르면 그에게 죽게 됨)

왜군들을 두려워 할리 없다

비선: 나는 듯이 빠르게 가는 배

우국충정으로 왜적을 무찌를 것을 다짐

말을 건네는 어조 나타남

요순 군민: 태평성대의 백성

일월 광화: 임금의 성덕 -> 이것이 지속됨을 비유

어주: 고기잡이 배. '전선'과 의미상 대구가 됨

파도 없는 바다: 평화로운 상황을 비유

* 칠종칠금(七縱七擒): 촉나라의 제갈량이 맹획을 일곱 번이나 사로잡았다가
 일곱 번 놓아주었다는 데서 유래한 말로, 마음대로 잡았다 놓아 주었다 함을 뜻함.

3위

우국가 (이덕일)

중요 포인트! 무조건 암기

작가가 광해군의 혼정 (군주가 정치 레전드 못해서 나라가 혼란) 보고 현타 옴 -> 나라 비판, 걱정 함
예) 외적 침입 피해에 대한 내용: "의관문물을 이대도록 더럽히고", "도적 오다 뉘 막으리"

지들 이득만 챙기고 싸움만 하는 대신 비판: "공명과 ~ 헤어 두고"부터 "이라 다 옳으면 ~ 그르랴"
-> 나라를 위해서 부귀공명 포기도 좀 해야지, 신하들은 잘하는 게 하나도 없슨 -> 임금아 해결해줘

[수능특강 수록 부분 <제1,3,5,11,12,19수> + 미수록 내용]

<제1수> 화자는 나라를 위해 문(공부) 포기하고 무(군인) 선택. 근데 뭐 딱히 이룬 게 없어서 안타깝

<제3수> 우리 파괴한 외적에 복수 다짐 <제5수> 인심 피폐해서 개탄함

<제6수> 나라가 이 모양인데 관료들이 무관심해서 안타깝

<제11수> 백성들 레전드 힘드니까 임금이 선정을 베풀어 주세요 <제12수> 조정 대신들 비판

<제14수> 봉당 맨날 싸우면서 임금의 충신도 없음. 결국 임금이 고립됨.

<제16수>, <제19수> 당쟁 멈추도록 임금이 공정한 태도, 역할 수행해야 함

<제26수> 당쟁 더 심해지면 생길 수 있는 비극 경고함

<제28수> 화자는 부귀공명 관심 없고 혼자 나라 걱정

본문 해석 어려운 말만 번역해 가세요

학문을 후리치고 반무(反武)를 하온 뜻은
삼척검 둘러메고 진심보국 하려더니
한 일도 하움이 없으니 눈물겨워하노라

<제1수>

나머지 수능특강 수록 부분 뒷면에 ▶

3위

우국가 (이덕일)

나라에 못 잇을 것은 예밖예 전혀 없다
 의관문물을 이대도록 더럽히고
 이 원수 못내 갚을까 칼만 갈고 있노라

〈제3수〉

도적 오다 뉘 막으리 아니 와서 알리로다
 삼백이십 주에 누구누구 힘써 할꼬
 아무리 애고애고 한들 이 인심을 어이하리

〈제5수〉

베 나아 공부 대답 쌀 찢어 요역 대답
 옷 벗은 적자(赤子)들이 배고파 설워하네
 원컨대 이 뜻 알으사 선혜 고루 하소서

〈제11수〉

공명과 부귀란 여사로 헤어 두고
 낭묘상 대신네 진심국사 하시거나
 이렇성저렇성 하다가 나중 어이 하실꼬

〈제12수〉

이라 다 옳으면 제라 다 그르랴
 두 편이 같아서 이 싸움 아니 마네
 성군이 준칙이 되시면 절로 말까하노라

〈제19수〉

1위

전우치전 (작자 미상)

중요 포인트! 무조건 암기

실존 인물이었던 전우치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 현실의 모순에 대한 비판의식 드러남

* 보통 일대기적 구성인 영웅 소설과 차이점? -> 전우치전은 삽화식 구성! 도술 부리던 여러 사건들 나열

* 홍길동전과 유사한 점 -> 도술 부리면서 권선징악을 실현하는 주인공의 활약

도술 -> 나쁜 놈들 (벼슬아치/탐관오리, 중/파계승) 벌 주고, 임금, 조정 신하들 농락, 백성은 돕고 구제

* 홍길동전과 차이점 -> 전우치 애는 막 확실한 사회 제도적 문제를 개혁하는 것도 아니고, 지배층에 전형적으로 저항하고 그러지 않음... 그보다는 전우치라는 인물의 개인적 욕망 성취를 위해 도술 부림.

+ 도술이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것도 차이점

-> 호정을 먹고 여우가 천서를 줘서 도술 획득함 -> 개인의 욕망 성취를 위한 사술(사기꾼처럼)로 묘사

[전우치전 구조] <전우치 탄생> 천상 선동 -> 지상 인간 출생. 호정으로 지리 통달, 천서로 도술 능통.

<전우치 활약> 백성 돕고 도적 잡아서 나라에 공 세움. 그러다 역모 혐의 -> 도술로 임금 속이고 튼.

도승지(벼슬) 왕연희 도술 써서 혼냄. <전우치 입산> 세상을 도술로 희롱하다가 강림도령이 혼냄.

서화담이랑 도술 대결 뒀다가 발리고 굴복함 -> 서화담 따라서 도 닦으러 입산함.

줄거리 (참고용)

천상 선동이었던 전우치는 고려 말 처사 전운화와 최씨 부인 사이에서 태어나 지상에 내려온다. 전우치는 여자로 변신한 여우에게서 호정(여우의 뱃이 담긴 구슬)을 받아먹고 천문과 지리에 통달하고, 세금사에서 만난 구미호를 징치하여 천서를 얻어 온갖 술법과 조화를 부릴 수 있게 된다. 전우치는 도술을 부려 임금을 희롱하고 악한 벼슬아치와 도적의 무리를 혼내 주기도 하는 한편 사방을 돌아다니면 곤경에 처한 백성들을 도와준다. 나라에 공을 세워 벼슬을 얻기도 하였으나 역모 혐의를 받게 되자 조정에서 도망쳐 나온다. 상사병이 든 친한 벗을 위해 상대 여자를 도술로 현혹하다가 강림도령에게 제지당하고, 서화담과의 도술 대결에서 굴복한 후 서화담을 따라 영주산으로 들어가 도를 닦게 된다.

1위

전우치전 (작자 미상)

주요 인물 무조건 암기

전우치: 약자 도와주니까 정의롭고 의협심 가졌음. 근데 권력자 희롱하고 궁궐 혼란 일으킴.

장계창: 호조의 창고지기로 어질고 효성스럽고 약자 도와 주고 싶음. 근데 문서 잘못 써서 감옥 감 ㅠㅠ

한재경: 전우치가 도와줘서 아버지 장사 치르고 노모 봉양. 욕심 부리다가 망했سن... -> 전우치가 살림

-> 공통점: 선한 성품 가짐. 애는 착한데... 뭐 하나씩 결함 있음

-> 여기서 의의: 평범한 민중, 범부랑 똑~같아서 독자들이 공감하고 동질감 형성 가능

2위

구운몽 (김만중)

중요 포인트! 무조건 암기

현실과 꿈을 넘나드는 환몽 구조가 특징임 이거 레전드 중요함!!!

→ 특히 이 작품은 꿈 속에서 또 꿈 나옴;; (몽중몽) → 액자식 구성도 되니까 출제하기 리 너무 좋음

그니까 환몽 구조 자세히 정리하겠습. 일단 크게는 '현실(선계)-꿈(인간계)-현실(선계)'의 서사 구조

→ 와 별의별 일 다 있었는데 강 꿈이었네 현타 레전드;; → 세속적 욕망 필요 없구나 → 불도 정진

* 현타 오는 거 → 인생 = 구름으로 표현, 인생무상, 일장춘몽

1) 현실(선계): 성진이 불도 닦다가 현타 느끼고 속세 가고 싶어짐. 육관 대사가 시켜서 용궁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팔선녀 만나서 플러팅 좀 나누다가 아 이게 인생이지 ㅋㅋ 이럼 (부귀영화 욕심 생김)

→ 육관 대사: 너 그딴 생각하면 불도 못 한다잉~ → 인간 세상에 환생하는 꿈 꾸게 해서 속세로 추방함 → 결과: 성진이 양소유로 환생

2) 꿈(인간계): 양 처사 아들 양소유가 되. → 과거 급제하고 나라에 공 세우고 부귀영화 잘 누리다

→ 양소유가 남해 태자를 사로잡아서 보상으로 용왕 잔치에 초대됨 → 남악 형산의 절 방문 → 노승 만나는 꿈을 꿈 (이게 그 특이한 구조라는 몽중몽임~) → 몽중몽에서 깨어난 후에 승전 → 레전드 갓생 살다가 벼슬에서 은퇴하고 이제 한가롭게 지냄 → 뭐야 이제 할일 없네 현타 오는데? → 그러다 깸

3) 다시 현실(선계): 도승이 깨워서 깸 거였습 → 다시 현실로 왔으니까 이제 양소유가 아니라 성진

→ 세속적 욕망의 허망함 깨닫고 불도에 정진하기로 함 → 팔선녀도 불가에 귀의 (얘네는 원래는 불교 아니었습 선녀는 불교가 아니라 도교 관련이니까) → 성진 팔선녀 전부 불도 정진 → 같이 극락 감 곤

중요 포인트! 무조건 암기

* 몽자류 소설 vs 몽유록계 소설 (구운몽은 몽유록계가 아니라 몽자류임. <보기> 주고 비교할 수 있음)

현실-꿈-현실의 환몽 구조는 공통적인데, 차이점이 크게 세 가지가 존재

- 1) 주인공: 몽자류는 꿈에서 아예 다른 인물됨. 몽유록계는 꿈에서도 같은 주인공임.
- 2) 꿈과 현실: 몽자류는 꿈에서 느꼈듯 현실도 똑같이 무상함 느낌. 몽유록계는 꿈과 현실 별개로 봄.
- 3) 꿈의 기능: 몽자류는 인생무상 깨닫게 하는 계기, 장치. 몽유록계는 꿈이 현실 불만 등 비판하는 통로

* 구운몽에 유교 도교 불교 다 나옴 → 3 사상 융합하면서, 불교의 공 사상 특히 강조함

유교적 가치: 나라에 충성, 공을 세운다 → 충, 입신양명/ 어머니에게 양소유가 효도 레전드 (효)

도교: 동정호 용왕, 위 부인과 팔선녀, 양소유의 부친 양 처사가 신선이 됨

불교: 육관 대사가 성진에게 불도 가르침, 팔선녀 삭발하고 여승돼서 불교 귀의, 극락 감, 공 사상 강조

줄거리 (참고용)

중국 당나라 때 남악 형산 연화봉에는 천축국에서 온 육관 대사가 불법을 베풀고 있었다. 어느 날 육관 대사는 제자 성진을 동정 용왕에게 보내어 사례하게 하는데 돌아오던 길에 성진은 석교 위에서 여덟 선녀를 만나 서로 희롱한다. 선방에 돌아온 성진은 팔선녀의 아름다움에 미혹되고 속세의 부귀공명으로 번뇌하다가 이를 알게 된 육관 대사의 명에 의해 인간 세상으로 추방된다. 성진은 인간 세상에서 양 처사의 아들 양소유라는 인물로 태어나고, 팔선녀도 인간 세상에 여덟 낭자로 태어난다. 양소유는 과거에 급제하고 입신양명하면서 여덟 낭자와 차례로 인연을 맺게 되어 팔선녀는 양소유의 2처 6첩으로 함께 부귀영화를 누린다. 조정에서 물러나 행복한 삶을 살던 양소유는 인생무상을 느끼는데, 호승의 인도로 꿈에서 깨어나 연화 도량의 성진으로 돌아온다. 성진은 육관 대사의 가르침으로 큰 깨달음을 얻고 팔선녀도 모두 불도에 귀의하여 큰 도를 얻어 극락세계로 가게 된다.

3위

삼한습유 (김소행)

중요 포인트! 무조건 암기

열녀 향랑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장편 소설. 작품 내에 온갖 인물, 사건, 시공간적 배경 (상고 시대 ~ 조선 시대, 국내 + 중국) + 인간계, 천상계, 마계 넘나들음. (체인소맨 흥행해서 출제 확률 완전 높음!!!)
원래 향랑 이야기는 향랑이 연못에 투신하고 끝남. 근데 삼한습유 작가는 향랑 일단 바로 환생시키고~ 전생에 연을 맺지 못한 효렴과 재혼시킴. 그리고 시간적 배경을 조선이 아니라 삼국 시대로 확 과거 여행 보내줘 버리고~ -> 다양한 역사상 인물 등장 가능 -> 스케일 아주 레전드 웅장하게 장편으로 씀

* 향랑은 시월드에서 잡도리 레전드로 당하다가 개가 강요 -> 정절 지키려고 투신 -> 정려 하사받음
-> 즉, 열녀 향랑 이야기란 남편에 대한 절의를 지킨 열녀로서 평가받는 향랑의 이야기임.

* 불교 윤회 사상, 유가 사상, 도선 사상 등 (유불선 삼교) 혼융한 것도 특징적이다.

줄거리 (참고용)

동쪽 집 자제 효렴의 아내가 되고자 한 향랑은 부모의 뜻에 따라 서쪽 집 자제와 혼인하지만, 남편과 시모의 모진 구박을 받고 쫓겨난다. 친절에 돌아온 향랑은 같은 고을 조씨 집과 혼담이 오가자 두 지아비를 섬길 수 없다며 연못에 투신하고, 선녀가 되어 위기에 처한 남편을 살린 후 부부의 도리가 끝났음을 말한다. 이후 옥황상제에게 이루지 못한 효렴과의 혼인을 소원으로 말한 향랑은 천상계 회의를 거쳐 인간계에 환생한다.

그리고 상제 명을 받은 젊은 장군이 김유신을 찾아와 향랑의 혼례를 주관할 것을명한다. 그리고 김유신은 왕에게 가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한다. 왕은 향랑의 집을 짓도록 윤허하고, 환생한 향랑의 일에 대해 감탄한다. 천상계와 인간계가 어우러져 향랑과 효렴의 혼례를 축하하고, 후토부인이 효렴과 향랑에게 인사를 건네고 작별한다.

3위

삼한습유 (김소행)

주요 인물 무조건 암기

김유신: 신라의 장수이면서 재상. 국내외 모두 명성 떨쳐서 왕이 신뢰함 (중신) / 천상의 신장이 향랑을 결혼할 수 있게 해주려고 넓은 집 지어 주도록 부탁해서 -> 자기가 왕한테 얘기해서 허락 받아 줌.
 + 향랑 관련 모든 일 조사해서 다 알고 있음. 향랑이 안타깝게 죽었던 것과 정절에 대해서도 다 앎.
 -> 신라의 장수였던 역사상 인물, 역사적 사실에 작가의 상상력을 더해 만든 이야기

후토부인: 1) 향랑 결혼할 수 있게 주관하는 일을 맡은 천상계 여신. 하늘이 김유신이 태어나게 할 때, 신라에 태어나서 향랑을 도울 수 있도록 도움을 줌. -> 인간의 운명에 관여하는 초월적 존재. (허구적)
 2) 향랑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 인물. 향랑의 첫 남편과의 인연을 비판하는 한편 향랑과 효렴의 인연을 인정하고 효렴을 사위라 칭하며 잘 살 것을 당부 (맹목적 절의보다 인간 본연의 정이 중요하다는 주제)

4위

사우가 (이신의)

중요 포인트! 무조건 암기

사우가는 귀양 가서 지은 총 4수의 연시조임. 자신의 절개를 소나무, 국화, 매화, 대나무에 비유함.

수특에는 <제2수>만 있는데, 여기서는 찬 서리에 혼자 피는 국화의 맑고 고결함을 여찬함.

* 대상을 대조적으로 제시: 풍상<->솔, 엄상<->국화, 눈<->매화, 백설<->대나무 (+ 인격도 부여)

본문 미수록 부분 + 현대어 해석

<제1수>

바위에 섰는 솔이 늠름(凜然)한 것이 반가운데.
풍상(風霜)을 겪어도 여위는 줄 전혀 없다.
엇지타 봄빛을 가져 고칠 줄 모르느냐

<제1수>

바위에 서있는 솔이 위엄 있고 당당함이 반갑구나.
풍상을 겪어도 여위지 않는구나. (위엄이 있고 당당하구나)
어찌하여 봄빛(푸른 빛)을 지니고 있어 고칠 줄 모르는가

<제2수>

동리(東籬)에 심은 국화 귀한 줄을 뉘 아나니
춘광(春光)을 번폐하고 엄상(嚴霜)이 혼자 피니
어즈버 청고(淸高)한 내 벗이 다만 넌가 하노라

<제2수>

동쪽에 있는 울타리에 심은 국화가 귀한 줄 누가 아느냐
따뜻한 봄 햇살을 마다하고 늦가을 서리에 혼자 피니
어즈버 맑고 고결한 내 벗이 다만 너뿐인가 하노라.

<제3수>

꽃이 무한호되 매화를 심은 뜻은
눈 속에 꽃이 피어 한 빛인 줄 귀하도다
하물며 그윽한 향기를 아니 귀(貴)고 어이

<제3수>

꽃이 많되 그중에서도 매화를 심은 뜻은
눈 속에 꽃이 피어 눈과 같이 흰빛인 것이 소중한기
때문이다.
하물며 그윽한 향기 또한 참으로 귀하구나.

<제4수>

백설이 잦은 날에 대를 보려 창을 여니
온갖 꽃 간 데 없고 대숲이 푸르려세라
어째서 청풍(淸風)을 반겨 흔덕흔덕 하나니

<제4수>

백설이 자주 내리는 날에 대나무를 보려 창을 여니
백설에 온갖 꽃은 간 데 없고(=다 지고) 대숲만 푸르구나.
어찌하여 대나무만 맑은 바람을 반기며 잎이 흔들흔들
하는가.

5위

출새곡 (조우인)

중요 포인트! 무조건 암기

출새곡에서 출새는 왕명을 받아 부임지로 떠나는 상황을 변경으로 나간다고 표현한 것.

→ 부임지로 가는 기대X 변방 지역으로 향하는 소외감, 박탈감 부각.

→ 비애와 한탄의 정조가 지배적. 변방으로 부임을 유배 가는 거로 비유함. 존중 즐기다가도 시름 느낌
전체 구조: 1) 북방 부임의 명을 받음 2) 한양 출발, 경성 도착 3) 북관의 봄경치 즐김 4) 한탄, 자연

* 내용이 길어서 출제하기 좋음. 현대어 해석 꼭 보고 가세요.

본문 미수록 부분 + 현대어 해석

북방 이십여 주에 경성(鏡城)이 접경인데
치병(治兵) 목민(牧民)*을 내게 맡겨 보내시니
망극한 성은을 갚을 일이 어렵구나
서생의 일은 한묵(翰墨)*인가 여겼더니
늙은이의 변방 부임 진실로 뜻밖이로다
임금께 절 올리고 칼을 짚고 돌아서니
만리 밖 국경에 이 한 몸 다 잊었어라
흥인문 내달아 녹양에서 말 갈아타니
은한 옛길을 다시 지나간단 말인가
회양 옛 사실* 기별로만 들었더니
대궐을 홀로 떠나 적객*은 무슨 죄이고
높고 험한 철령을 험하단 말 전혀 마오
세상살이에 비겨 보면 평지인가 여기노라
눈물을 거두고 두어 걸음 돌아서니
한양은 어디오 대궐이 가려졌도다
안변 북쪽은 저기쯤이 오랑캐 땅이러니
비린내 노린내 일소*하여 천리 밖 몰아내니
윤관* 김종서*의 큰 공적을 초목이 다 알도다

북방 이십여 주에 경성이 접경인데
치병 목민을 내게 맡겨 보내시니
망극한 성은을 갚을 일이 어렵겠구나
서생의 일은 한묵인가 여겼더니
늙은이의 변방 부임 진실로 뜻밖이로다
임금께 절 올리고 칼을 짚고 돌아서니
만리 밖 국경에 이 한 몸 다 잊었어라
흥인문 내달아 녹양에서 말 갈아타니
은한 옛길을 다시 지나간단 말인가
회양 옛 사실 기별로만 들었더니
대궐을 홀로 떠나 적객은 무슨 죄이고
높고 험한 철령을 험하단 말 전혀 마오
세상살이에 비겨 보면 평지인가 여기노라
눈물을 거두고 두어 걸음 돌아서니
한양은 어디오 대궐이 가려졌도다
안변 북쪽은 저기쯤이 오랑캐 땅이러니
비린내 노린내 일소하여 천리 밖 몰아내니
윤관 김종서의 큰 공적을 초목이 다 알도다

나머지 부분 뒷면에 ▶

본문 미수록 부분 + 현대어 해석

용흥강 건너 들어 정평부 잠깐 지나
만세교 앞에 두고 낙민루에 올라앉아
옥저* 땅 산하 하나하나 돌아보니
천년 풍패*에 가득한 맑은 기운 어제인 듯하구나
→ 여기까지 수능특강 수록된 부분

용흥강 건너 들어 정평부 잠깐 지나
만세교 앞에 두고 낙민루에 올라앉아
옥저 땅 산하 하나하나 돌아보니
천년 풍패에 가득한 맑은 기운 어제인 듯하구나
→ 여기까지 수능특강 수록된 부분

함관령 저문 날에 맑은 어찌 병 들었는가
모래바람 자욱한데 갈 길이 멀었구나
홍원 고현의 천관도를 바라보고
대문령 넘어 들어가 청해진에 들어오니
함경도의 요해지요 남북의 요충지라
충신과 정예 병사 무기를 늘어놓고
강환 할과 쇠뇌로 요충지를 지키는 듯
태평세월 백 년 동안 전쟁을 잊으니
청통 같은 보안 일러 뭐하겠는가
거산역 지나 들어 시중대에 올라 앉아
해 뜨는 동해 일출 굽어보고
장송 십리 길에 먼 길 가는 말 다시 보아
단천을 곁에 두고 사지헌을 찾아 가니
마운령 말 채찍질 해 넘어 마곡역에 말 쉬어
눈 쌓인 마천령을 힘겹게 넘어 가니
경기도는 어딘가 축잔이 여기로다
성진에 진 친 형세가 좋긴하지만
난후 백성의 기름과 피가 말라버렸으니
조정의 육식은 아는가 모르는가
백두산의 한 갈래가 장백산이 되어 있어
천 리 경계 막아 강역을 나뉘었거늘
각 군사기지들이 별처럼 펼쳐져있고 군읍이 정리되어 있어
안팎이 저절로 험하거니 장함이 그지없다

5위

출새곡 (조우인)

본문 미수록 부분 + 현대어 해석

군영에 일이 없고 막사 한가한 때
 기녀와 함께 산에 올라 술동이를 기울이려
 꽃 피는 춘삼월에 원수대에 올라가니
 춘풍이 화창하여 맑은 경치 부쳐 내니
 빼곡한 수풀은 붉은 비단 되어 있고
 구름인 양 눈인 양 파도는 하늘을 끝을 삼아
 솟구치고 흩어지며 대 앞에 물러가니
 은빛 산이 걷히는가 눈가루가 날리는가
 비단 같은 잔디에 백운 같은 천막 치고
 버들잎 쏘는 묘기로 승부를 다투거든
 무리 지은 미녀들 좌우에 벌여 있어
 아쟁이며 비파를 타거니 켜거니
 아리따운 여인들 추거니 부르거니
 봄 경치도 끝이 없고 풍경이 끝없으니
 한바탕 봄놀이 싫증남 직하다마는
 고향을 바라보니 험한 고개 가려 있고
 객지의 산천은 곳곳이 육진(六鎭)이로다
 태평 시절 적객은 도처에 군은(君恩)이로되
 대궐에서 멀어진 몸 뉘 아니 슬퍼하며
 대궐로 돌아갈 일 어떻게 기약할까
 평생 먹은 뜻이 전혀 없다고 할까마는
 시운(時運)의 탓이런가 운명에 매였는가

하늘 이어진 푸른 바다 위로 풍설이 섞어 치는데
 산넘고 물넘어 목랑성에 들어오니
 매우 높은 분첩은 반공에 빚겨 있고
 매우 깊은 해자는 성 밖 사면을 두르고 있으니
 인화를 얻을지언정 지리야 부족하겠느냐.

↓ 아래부터 수능특강 수록된 부분
 군영에 일이 없고 막사 한가한 때
 기녀와 함께 산에 올라 술동이를 기울이려
 꽃 피는 춘삼월에 원수대에 올라가니
 춘풍이 화창하여 맑은 경치 부쳐 내니
 빼곡한 수풀은 붉은 비단 되어 있고
 구름인 양 눈인 양 파도는 하늘을 끝을 삼아
 솟구치고 흩어지며 대 앞에 물러가니
 은빛 산이 걷히는가 눈가루가 날리는가
 비단 같은 잔디에 백운 같은 천막 치고
 버들잎 쏘는 묘기로 승부를 다투거든
 무리 지은 미녀들 좌우에 벌여 있어
 아쟁이며 비파를 타거니 켜거니
 아리따운 여인들 추거니 부르거니
 봄 경치도 끝이 없고 풍경이 끝없으니
 한바탕 봄놀이 싫증남 직하다마는
 고향을 바라보니 험한 고개 가려 있고
 객지의 산천은 곳곳이 육진이로다
 태평 시절 적객은 도처에 군은이로되
 대궐에서 멀어진 몸 뉘 아니 슬퍼하며
 대궐로 돌아갈 일 어떻게 기약할까
 평생 먹은 뜻이 전혀 없다고 할까마는
 시운의 탓이런가 운명과 재수에 매였는가

5위

출새곡 (조우인)

본문 미수록 부분 + 현대어 해석

진대* 백수(白首)에 세월이 쉬이 가니
 초택 청빈*은 원망도 많은지고
 이 잔 가득 부어 이 시름 잊자 하니
 동해를 다 퍼낸들 이내 시름 어이할꼬
 어부 이 말 듣고 낚싯대 둘러메고
 뱃전 두드리고 ㉠노래를 부르니
 세상일 잊은 지 오래니 몸조차 잊었노라
 갖가지 세상살이에 낚싯대 하나뿐이로다
 갈매기는 나와 벗이라 오며 가며 하는구나

진대 백수에 세월이 쉬이 가니
 초택 청빈은 원망도 많은지고
 이 잔 가득부어 이 시름 잊자 하니
 동해를 다 퍼낸들 이내 시름 어이할꼬
 어부가 이 말 듣고 낚싯대 둘러메고
 뱃전 두드리고 노래를 부르니
 세상일을 잊은 지 오래니 몸조차 잊었노라
 갖가지 세상살이에 낚싯대 하나뿐이로다
 갈매기는 나와 벗이라 오며 가며 하는구나

수능특강 각주

- *치병 목민: 군대나 군인을 관리하고 훈련하는 것과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이룸.
- *한묵: 문한과 필묵이라는 뜻으로, 글을 짓거나 쓰는 것을 이룸.
- * 회양 옛 사실: 한나라 무제 때 급장유가 선정을 베풀었던 일. 회양은 강원도 북부에 있는 고을로 급장유가 태수를 지낸 회양과 이름이 같음.
- *적객: 귀양살이를 하는 사람. 경성 판관으로 부임하는 작가의 신세를 일컬음.
- *비린내 노린내 일소: 비린내와 노린내를 물 뿌리고 쓸어 냄. 오랑캐를 정벌한다는 뜻으로 쓰임.
- *윤관: 고려 예종 때의 문신. 여진을 정벌하고 함경도 지방에 구성을 개척함.
- *김종서: 조선 세종 때 무신. 육진을 개척해 국토를 넓히는 데 큰 공을 세움.
- *옥저: 함경도 함흥 일대에 위치했던 고대 국가.
- *풍패: 천 년 전 한나라를 건국한 유방의 고향에 빗대어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의 고향인 함흥을 가리킴.
- *진대: 초나라 회왕과 무산신녀가 밀회를 즐기던 누대.
- *초택 청빈: 초나라 연못 푸른 마름. 초나라 굴원이 유배지에서도 변치 않은 충절을 지녔던 사실을 의미함.

4위

숙향전 (작자 미상)

중요 포인트! 무조건 암기

숙향이 여러 차례 죽을 뻔하다가 하늘이 정해 준 베필인 이선과 애정을 성취하는 과정의 작품.

→ 왜 계속 죽을 뻔하냐면, 천상계에서 월궁 선녀가 저지른 죄과에 대해 대가를 치르는 과정임

숙향전 주인공은 원래 천상계의 태을선군과 월궁 선녀인데, 죄를 지은 벌로 지상계 감 (적강 모티프)

태을선군 → 이선(이생)으로 적강 + 월궁 선녀 → 숙향으로 적강 → 지상계에서 다시 만나는 이야기

→ 계속 죽을 뻔하지만 1) 천상의 인연 2) 신이한 힘이 계속 살려 줌~ → 얘네는 정보도 제공함

숙향은 전생을 기억 못 하기 때문에 얘네가 숙향의 원래 신분을 깨닫도록 정보를 제공함.

* 천상계와 지상계가 완전히 분리X, 하나로 연결된 세계로 제시됨.

→ 숙향과 이선의 만남과 사랑의 완성 = 천상에서부터의 인연을 실현하는 과정

→ 하늘이 정해 둔 운명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랐던 당시 사람들의 기대가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줄거리 (참고용)

중국 송나라 때 김전은 어부들이 잡은 거북을 살려 준다. 김전은 장희의 딸과 결혼하여 숙향을 낳는데, 관상가 왕규가 숙향을 보고 '월궁의 선녀가 적강하여 인간으로 환생한 것이며, 여러 위기를 겪은 뒤에 부귀영화를 누릴 것임'을 예언한다. 숙향이 다섯 살 때 금나라가 쳐들어와 숙향은 가족과 헤어진다. 도적들은 어린 숙향을 거두어 마을에 버리고 떠나는데, 선녀가 나타나 앞으로 십오 년 동안 여러 번 죽을 고비가 닥칠 것임을 알려 준다. 자식 없는 장 승상에게 기탁하게 된 숙향은 사향의 모함으로 그 집에서도 쫓겨난다. 이리저리 떠돌던 숙향은 갈대밭에서 불을 만나 죽을 위기에 처하지만, 화덕진군의 도움을 받아 살아나고, 마고선녀(할미)를 만나 함께 살게 된다. 한편 병부 상서 이 위공의 아들 선은 숙향이 놓은 수를 보고 숙향을 찾아 나선다. 할미의 집에서 숙향을 만난 이선은 고모의 주관으로 숙향과 결혼을 하지만, 아버지 이 위공의 반대로 숙향과 헤어져 태학에 들어가게 된다. 숙향은 아버지 김전에 의해 죽을 위기에 처하지만 할미 등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한다. 할미는 청삽살개를 두고 하늘로 올라가고, 숙향은 이선의 어머니를 만나 오해를 풀고 결혼을 인정받는다. 과거에 급제한 이선과 함께 부임한 숙향은 장 승상을 만나고, 김전도 만나 혈육의 정을 나눈다. 이선은 황제의 불사약을 구하는 일에 추천을 받아 여러 죽을 고비를 넘기면 불사약을 구하게 된다. 이선과 숙향은 칠십 세에 신선이 따로 준 약을 먹고 하늘로 올라간다.

4위

숙향전 (작자 미상)

주요 내용

[서사 구조] 적강 소설, 애정 소설, 영웅 소설 성격이 전부 나타남 (문학사적 가치 매우 높음)

1) 천상계: 태을선군과 월궁 신녀가 죄를 지어서 옥황상제가 벌을 내림. 그래서 적강하게 됨.

2) 지상계: 1) 숙향의 고난 → 전쟁으로 부모 잃고 죽을 뻔 → 여종이 모함해서 쫓겨남 → 강에 빠짐
→ 불에 타 죽을 뻔까지 함 리 레전드 억까에 억까 연속

2) 이선(이생)과 숙향의 결연담 → 이선이 숙향을 만나려고 진심으로 노력
→ 이화정 할머니와 이선의 고모인 여 부인 주선으로 결혼

3) 이선의 모험담 → 병든 황태후를 살리기 위한 이선의 구약 (약을 구하는) 여행

4) 성공담 → 초왕이 되어 숙향과 행복한 삶을 누림.

3) 천상계: 초왕과 정렬왕비가 함께 천상으로 올라감.

* 숙향의 생애가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가짐. (고귀한 혈통 → 어려서 고난 → 조력자 도움 → 성장
→ 성장하고 나서 또 위기 → 위기 극복 → 해피 엔딩) + 이선의 모험담, 성공담도 영웅의 행적

랑샘국어)

문학사적 중요도로 따지면 올해 숙향전보다 중요한 작품이 없습니다. 매년 EBS 연계 교재에도 거의 항상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원에 2015학년도 수능 이후로 출제된 적이 없어서 "아 이제는 진짜 나올 만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럴 때마다 평가원이 엉뚱한 걸 출제합니다.

당연히 수능 당일 아침까지도 봐야 하는 작품이 맞지만, 오히려 너무 출제 가치가 높아서, 그리고 여러 다른 요인들을 고려해서 출제 중요도 4위로 선정했습니다. 이 정도 정리된 만큼만 보고 가도 충분합니다.

5위

청백운 (작자 미상)

중요 포인트! 무조건 암기

주인공 두쌍성의 일대기 -> 가문의 확립과 번성이라는 가문 소설의 특징이 드러남.

두쌍성 -> 명문가에서 태어나 뛰어난 재능을 갖췄음에도 완벽한 영웅으로 나타나진 않음. 또 결혼한 호 부인은 두쌍성이 자초한 고난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이때 자기 능력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임

* 호 소저: 힘들던 시절 자기 머리카락 팔아서 설 부인 봉양하는 등 효를 다함. -> 바람직한 여성상
-> 처첩 갈등으로 이혼한 뒤 호 소저는 조력자 만나서 침술 배움 -> 전쟁에서 죽을 뻔한 두쌍성 구함
->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호 소저의 모습 -> 사회적 제약에서 탈피한 여성상!

* 처첩 갈등

두쌍성은 호 부인과 혼인 -> 벼슬도 얻고 잘나가다가... -> 두쌍성이 첩을 두 명이나 들이게 됨!! ㄷ
-> 집안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함 -> 결국 이혼함

줄거리 (참고용)

송나라 두 공과 설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두쌍성은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어 진 선생을 따라 화산에서 수학하게 된다. 다시 집으로 돌아온 두쌍성은 호 소저를 부인으로 맞이하고, 호 소저는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효를 다하며 남편을 보필한다. 이후 두쌍성은 장원 급제를 하여 공명을 얻는데, 어느 날 기생 나교란과 여섬요를 만나게 되면서 이들에게 미혹된다. 결국 두쌍성은 두 기생을 첩으로 들이고, 두 첩들은 시어머니가 죽자 호 부인을 모함하여 집에서 쫓아낸다. 조력자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한 호 부인은 침술을 배우게 되고, 두쌍성은 그동안 있었던 두 첩들의 악행을 알게 된다.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참전하게 된 두쌍성은 적의 독화살에 맞아 위기에 처하지만, 이때 나타난 호 부인의 침술로 살아난다. 결국 전쟁에서 승리한 두쌍성은 두 첩들을 처벌하고, 두쌍성과 호 부인은 복락을 누리다가 신선이 된다.

마치며,



기본적으로 수능특강이 새로 나온 이후 꾸준히 연계 교재를 봤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수능을 앞둔 학생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2023학년도 수능 때는 '독서 딱 3지문' 선별, 2위 적중
2024학년도 수능 때는 '독서 영역별 10지문' 선별, 3위 적중

2025학년도 수능 때는 공개하지 않았던 연계 선별 자료를,
올해는 지문의 상세한 분석 자료와 함께 무료로 드렸습니다.

연계 리스트만 공개하면, 학생들은 분석 자료를 또 찾습니다.
수능 직전에, 자료를 찾느라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딱 이 자료만 공부해도, 수능 당일 딱 이 자료만 들고 시험장에
가도 연계 체감은 완벽하게 되도록 제작했습니다.

이 자료로, 수능 당일 보게 될 지문과 작품을 미리 보세요.
2025년 11월 13일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하루가 될 것입니다.

내년에도 최고의 강의와 자료를 개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둠속의
광샘